

붙임1**체험 후기 양식1: 국외 파견 프로그램 참가자**

학번		성명	
학과		파견 국가	중국
참여프로그램			
파견대학 (기관)	산동성 연태시 루동대학교		

1. 출국 전 준비사항**파견 국가 중국 기준, 준비해야할 서류**

- 중국비자발급용 신체검사서
- 범죄사실증명서(루동대학교만 해당)
- 영문재학, 성적증명서
- 여권사본, 증명사진
- 재정보증인신분증사본

준비하면서 든 비용

한학기 는 X2비자 발급하여 사용, 비자는 학교 대행사에서 발급 받아 100,000원
 인천에서 연태 비행기 대략 100,000원
 보험료 유학생 하나은행 보험 가입 50,000원
 환전은 미리 500,000원 해놓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돈은 필요 없음 200,000원이면 충분
 중국은 한국 카드를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유학생 카드(트래블 카드)를 연동해서 사용
 한국에서 이심구매하여 사용 1개월 40,000원
 VPN구매(JLVPN) 3개월 29,000원

유용한 어플**2. 공항 도착 후**

연태공항에 도착했다. 루동대학교에서 기사아저씨분을 불러서 공항에서 나를 픽업하러 와주셨다. 루동대학교와 공항은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택시타면 120원(한화 24,000원) 정도 나온다. 공항에 도착해서 루동대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나의 방을 확인 받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중국 통장을 만들고 중국에서 유심을 받고 기타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갔다. 처음에 중국 오기

전에 HSK4급을 따고 들어갔지만 중국인들이 하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빠르고 열화가 있어 더욱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동안 해커스로만 중국어를 들던 나에게는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3. 파견 대학(도시) 소개

내가 파견된 곳은 연태에 있는 루동대학교이다

일단 한국어랑 매우 가깝다.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

연태라는 도시는 지하철이 없고 다소 작은 도시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하지만 공기가 너무 맑고 좋다. 밤이 되면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 한국어랑 기후가 굉장히 비슷하다 북경처럼 막 건조한 느낌도 없고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다 있고 겨울에도 눈이 내린다. 그리고 물가도 상하이나 북경보다 비교적 싸다. 근처에 칭따오도 있고 연태에서도 개발구쪽에 한국기업이 많아 우리학교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 40분 정도 가면 개발구에 도착하는데 그 곳에는 많은 한국음식이 있다. ex)한향복 감자탕, 동대문엽기 떡볶이, 족발 그래서 한국 음식이 그리울때면 개발구에 들러 한국음식을 먹곤 했다. 그리고 내가 간 대학교에는 한국인이 아주 적었다. 그래서 중국어로 말하는데 더욱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다. 이탈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태국 각국에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내가 다닌 대학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일단 아주 크다. 그리고 식당이 5개의 건물로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커서 15분에 200원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기도 한다. 택배를 찾으러 가는 곳은 걸어가면 30분 가량이 걸려서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다.

4. 학교 생활

일단 수강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리했다. 학교에서 시간표를 다 짜줬다. 중국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아침 8:00-12:00에 수업이 있고 오후는 자유시간이다. 오후 수업은 신청해서 받는다. 하지만 선착순이나 수 제한이 없기에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 신청기간에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 부분에서는 매우 좋았다. 반에 들어가기 전에 반배정 테스트를 본다. 나는 1-2반에 배정됐다. 하지만 너무 쉬운거 같아서 2-1반에 들어갔더니 너무 어려워서 다시 내려왔다. 1-2반은 HSK4급 준비반이라고 하신다. 하지만 두 반의 수준차이가 엄청나서 복습할겸 다시 HSK4급 수준을 공부하기로 했다. 나는 말하기 듣기 문법 독해 단어 위5가지가 필수로 들어야하는 것이었는데 선생님들도 유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 한국 대학교 교수님들의 수업방식만 들어봤던 내가 중국대학교 중국인 교수님들의 수업을 막상 들으니 다른 점이 있었다. 중국에서의 수업방식은 한명한명에게 지목해서 답을 물어보고 선생님이 서스럼없이 학생에게 장난치고 친목적인 분위기였다. 처음에 모두가 있는 곳에 나에게 장난치셔서 사실 당황했다. 근데 금방 적응되고 친해졌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도 중국인 선생님께 서스럼 없이 주고 받을 수 있어 좋았다. 시험범위에 있어서는 양이 꽤나 상당했다. 근데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시험범위가 제대로 된 시험범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8-14과까지 시험범위라고 하셨는데 시험지에 20과의 내용이 나왔다. 이 부분은 배우지도 않았다. 시험지를 받은 순간 너무 충격적이였다.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지..? 이 선생님이 문법과 단어를 담당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안낸다고 한 부분에서 내니까 속절없이 그 부분을 틀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은 훑고 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난 단어와 어법 시험에서 이렇게 망했어서 듣기 시험도 6과까지 배운건데 그냥 12과까지 공부했다. 아니나다를까 7,8과에서 내셨다. 다행히 듣기 시험은 잘 봤다. 단어와 어법도 이렇게 공부할껀이라는 후회가 된다. 루동대학교 하라오스 선생님에게 문법 단어 수업을 받는다면 꼭 끝까지 다 보고 시험 보길 바란다. 시험범위 문제를 제외하곤 다 좋았다. 점점 내가 중국어 실력이 느는게 느껴졌다. 선생님이 하는 모든 말을 80%정도 이해하는 수준까지 왔다.

기숙사는 2개로 이루어져 있다(구기숙사, 신기숙사) 하지만 별다른 점을 못 느꼈다. 나 들어올때는 구기숙사와 신기숙사 두 숙소의 방의 값을 같게 받았다. 구기숙사에 학생들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살

기 때문에 문의하기는 편했다. 그리고 수업 듣는 곳과 더 가까워서 구기숙사를 추천한다. 주방 여는 시간, 따뜻한 물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있다. 주방 여는 시간은 아침 7:00-11:00 14:30-20:30이 외의 시간은 닫아놓는다. 따뜻한 물은 오전6:00~8:00 오후 17:30~23:00이다. 제한되어 있어서 좀 번거롭다.

5. 성과

나는 이 파견을 통해 눈에 띄게 향상된 중국어 실력을 가질 수 있었다. 환경이 중국이기도 하고 모든게 다 중국어, 중국어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도 중국분이고 나는 거기서 중국어를 무조건 다 이해해야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공부도 열심히 했다. 나는 중국어 전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HSK공부 말고 중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다. 교환학생으로 온것이기 때문에 학점도 되게 중요했다. 처음에 중간고사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할 줄 몰라서 두려움에 계속 공부했던 것 같다. 처음에 학교에 도착하기전 기사아저씨가 하는 말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은행에 가서 잊어버린 비밀번호도 새로 갱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 한국에서 아무리 스스로 공부하고 해도 환경이 주는 영향은 아주 크다는 것을 알았다. 중국 교환학생을 가게되어 중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 중국인 친구들과 중국의 기념일 모든 걸 다 함께 하다보니까 진짜 나도 중국인이 된것처럼 이 안에서 스며들었다. 수업 듣기 전에 따뜻한 물을 텀블러에 담아 마시는 나를 보고 중국의 차문화에 점점 물들었구나 했다. 중국에 살동안은 차가운 물을 마셔본 적이 손에 꼽는 것 같다. 그리고 나에게 중국어라는 언어가 더욱 재밌어졌다. 원래도 중국어를 배우면서 되게 재밌다고 느꼈는데. 중국에서 단어수업을 할 때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변형됐는지까지 알려주셔서 아 저게 저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구나! 했다. 나에게 새롭고 신선했다. 조선대학교 국제화프로그램덕에 나는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서 단순 언어와 문화를 알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낯선 타지에서 혼자 떨어져 이런저런일을 많이 겪다보니 다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한층 더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6. 비용

기숙사-1,000,000원
생활비-달에 300,000원(식비 포함)
통신비-50,000원
중국에서 든 보험료-30,000원(한국 별도)

7. 기타 중요사항

중국 교환학생을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조언 한마디를 하자면 “언어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처음 배운 중국어, 당연히 중국인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내 성조가 틀렸을 수 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뻔해보자 계속계속 뻔다보면 내가 한 말의 성조가 어디가 이상했는지 어디 부분이 중국인이 이해하기 힘들었는지 직접 부딪히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 친구를 많이 만들다보면 생활에서 배우는 중국어를 더욱 친숙하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배우는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중국인 친구에게 물어볼 수 있다. 처음은 누구나 다 힘들고 그것도 말이 100%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혼자 생활하기에 더더욱 지치고 괴롭고 고독할 수 있다. 하지만 난 이런 중국 교환학생 활동을 통해 중국어를 더욱 더 공부해서 중국어를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단순 학점만 교류한다고 생각하는게 아닌 그 나라의 음식, 문화, 습관까지 전부 다 마음껏 적시고 온몸으로 느껴보길 추천한다. 그 결과로 더욱 성장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매 국가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 매력을 아직 접해보지 않고 몰랐을뿐 중국에 적응되어가면 내가 몰랐던 중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